

광통신 관련 신기술개발로 부품 선진화 앞장

광통신의 선두 업체

(주)케이텍정보통신(대표 권철규 www.ktechinfo.co.kr)은 1998년 4월에 창립하여 21세기 「초고속 정보통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광통신의 선두 업체로서 광계측, 광전송, 광부품, 광네트워크 개발에 힘쓰고 있다. 먼저 이 회사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ISO9000인증을 획득하였고 일본 SUMITOMO사의 한국 AGENCY로써 SUMITOMO사 광융착 접속기를 국내에 독점판매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직원들간의 단결력과 탄탄한 영업력을 밑바탕으로 한국통신, 대학교, 일반공사업체 등에 광융착접속기 납품으로 국내 광융착 접속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광케이블 포설 공법인 ABF(Air Blown Fiber)시스템을 국내에 보급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일본 SUMITOMO사로부터 ABF시스템 기술 이전을 마쳤다. ZERO DEFECT 제품품질달성, 서비스 품질 완벽달성, 고객만족 경영실현이라는 품질방침 아래 제품의 정확한 원

인 분석으로 신속한 A/S를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장점이다.

이러한 기세의 영향으로 항상 새로운 사업방안을 모색하여 기존의 광케이블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던 접속기의 시장을 전전년도에 비해 500%의 신장세를 이룩하는 쾌거를 이뤘다.



권철규 사장

광통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 고객층은 기간통신 사업자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목표 타겟을 설정해 집중 영업하는 케이텍만의 영업전략만의 비법이다. 또한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 꾸준한 재투자로 광통신 네트워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DTMS(Data Trunked Management Systems)시스템을 개발하여 2001년에 양산화 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공급하게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밖에 정부 시책인 학내망 네트워크 구축에도 참가하여 각 전화국의 광통신 중단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현재 한국통신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입자망 구성망을 구성하여 직원교육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학내망과 한국통신 광통신 교육실습장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향후에 전개될 초고속통신의 광네트워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오고 있다.

접속기의 부품개발에 주력

케이텍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첫번째가 현재 일본과 독일 등 정밀 산업에 발달한 국가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광섬유 융착 접속기

극복하기 위해 접속기의 부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ABF(Air Blown Fiber) Systems으로 기존에 인력을 이용한 광케이블의 포설법을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세대 건축 및 포설법으로 그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ABF의 장점은 가장 중요한 경제성, 유연성, 신뢰성, 실용성 등을 들수 있는데 이중 대부분 환경에서 2명의 인력으로 ABF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포설법에 비해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세번째는 DTMS(Data Trunked Management Systems)으로 현재 가입자망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장애를 감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주제품은 광섬유 융착접속기로 이는 정보통신시장 타 회사보다 월등히 높은 70%이상의 점유율이다. 특히 TYPE-36은 코아정렬기능(HDCM)을 탑재, 자동 접속이 가능하여 특별한 기술 없이도 낮은 손실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거기에 신속 정확한 A/S보증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 외에 광심선 측정기 및 광 선로 측정 장비, 계측장비 등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케이텍은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가입자망의 장애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처리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기존의 기간통신업자가 가입자망을 관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인력 확충이 시급

케이텍은 최근 망 구축과 광대역 도시정보망 구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성장 전망이 밝아 올해도 지난해 광케이블 시장 수요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광산업 팽창이 가능했던 원인 중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도시정보망의 광섬유화, 고밀도파장분할다중화(DWDM) 시스템 장비 시장의 성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회사는 기존에 이룩한 광접속기 시장을 배경으로 광케이블 시장의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며 해외 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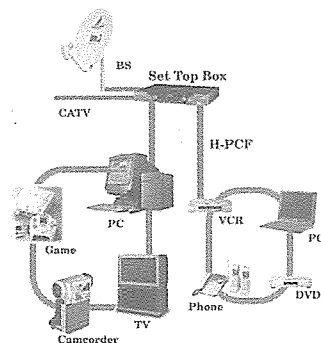
술개발협의회와 광산업진흥회 등 정부기관과 더불어 수차에 걸친 공동 기술개발 협력을 통한 특수 광섬유(H-PCF), WDM기술의 테라비트급 광전송분야, WDM-PON 장비, 광가입자망분야, 광원모듈 등 광네트워크의 핵심 기술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예정이다.

광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핵심기술이며 향후 21세기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광산업의 발전이 없이는 국가 경쟁력 재고와 정보통신 사회의 실현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광산업 시장은 98년 1,300억불을 필두로 2005년에는 2,300억불 2013년에는 4,000억 이상으로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이며 부가적인 파생산업을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철규 사장은 “그러나 광통신 핵심부품의 기술력과 전송기술은 아직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고 직접 사용되는 제품의 생산, 개발에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한 것이 통신업계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이밖에 한정된 기술인력과 지속적인 개발인력의 수급 및 투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히 확대되는 광통신 부품을 외국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 광통신 산업의 난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질 때 광통신 업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취재/김현희 기자



▲ H-PCF적용사례 (Home Network)